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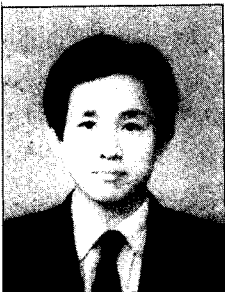
## 『리우회의』 이후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금년 6월의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전반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의 고조와 함께 향후 전개될 환경으로 인한 무역마찰 등을 우려, 기업자구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등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그룹차원의 환경전담부서를 설치 그룹내의 환경문제 해결책의 강구와 함께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주요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체 암행감사 등을 실시하며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대기업의 환경산업 진출 러쉬

금년들어 대기업의 환경산업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환경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예상하고 소각로건설, 오·폐수고도처리분야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업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환경산업에 적극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듯 하다.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상당수의 대기업이 환경산업에 진출하였으나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진출이 두드러진 분야는 폐기물소각처리분야로서 14개 그룹사가 독일·미국, 일본 등과 기술제휴로 국내시장의 석권을 노리고 있다(표 1). 향후 2000년까지 3조4천억원(145개처리장)의 시장규모에 달할 국내 폐기물소



신 현 국 / 환경처 기술개발과장

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그룹간의 경쟁은 가히 치열하다고 표현된다. 현재, 폐기물소각시설은 2개소(의정부, 목동)이며 폐기물매립지 확보곤란 등으로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고, 아직 소각시설 전문업체가 국내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무주공산을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그룹간의 『환경』이라는 신시장 점유에 대한 자존심까지 걸려 있다고 보여진다. 소각시설의 경우 일본과의 기술제휴가 제일 많고 다음이 독일, 미국, 스위스 등이다.

〈표 1〉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국내 주요업체의 기술제휴현황

업 체 명	기술제휴사	비 고
삼성엔지니어링	미쓰이중공업(일본)	
삼성종합건설	Moris(미국)	
현대중공업	GBA사(독일)	
대 우	히다찌조선(일본)	목동(150톤) 대구시(200톤)
럭 키 개 발 럭키엔지니어링	W+E(스위스)	
'선 경 건 설	Seghers(벨기에)	
대 립 산 업	다쿠마(일본)	
삼 환 기 업	가와사키중공업(일본)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 오·폐수고도처리기술 분야에 대한 진출이다. 30대그룹을 예로들면 삼성·효성·롯데 등 6개 그룹사가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실시하고 있다(표 2).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추가건설(현재 하수처리율 33%)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향후 질소·인제거 등 오·폐수의 고도처리 기술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한 진출로 보여진다. 환경개선중기계획과 7차5개년계획(환경부문)에 의하면 '96년까지 이 분야에 약 3조원(228개 처리장)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96년 1월부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질소·인의 규제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의 진출 러쉬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표 2〉 30대그룹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오·폐수고도처리분야 진출현황

업 체 명	기술제휴사	비 고
삼성엔지니어링	ICI(영국) Sankyo 엔지니어링(일본)	초심층공법
중 양 개 발	E&S(미국)	-
코오롱엔지니어링	SGN(프랑스)	혐기성처리
삼 양 사	미쓰비씨(일본)	-
효 성 건 설	히다찌(일본)	오니퇴비화
롯데기공	삼공유기(일본)	-

다음으로, 그룹사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지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번 김포매립지의 주민반대로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일부업체의 조업이 중단 되기도 하였으며, 향후 산업폐기물(주로, 특정폐기물)의 위탁처리가 용이하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위탁처리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룹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체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향후 국·내외 환경문제의 해결 및 기업간의 경쟁에서의 최종결판이 환경기술의 조기개발에 있다고 판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분야 전문연구소의 설치 『봄』을 들 수 있다. 환경분야의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종합연구소내에 환경분야를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고 있다(표 3).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폐기물소각처리기술개발, 오·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고효율 전기집진기 개발 등 향후, 환경시장의 주종을 점할 부분이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G-7 프로젝트에 직·간접으로 간

**『리우회의』 이후의 『봄』을 타고 일어난  
환경의식전환운동 등이 일과성이 아닌 범국가적  
환경의식전환운동으로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면서 국가주도 환경기술개발에 동참하기도 하며, 국립환경연구원, 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고 자체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와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자체점검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암행감시는 야간 점검도 실시하여 현장 기술인력들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표 3〉 주요기업의 환경분야 연구소 설립 현황

그 룹 명	환경분야 연구소 설치내용
삼현대	삼성환경연구소 종합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환경연구실) 고등기술연구원 설립추진
럭키·금성	럭키금성경제연구소(산업연구실) 및 환경연구팀
선두쌍코	선경인더스트리 연구소 두산기술원 중앙연구소 환경연구팀

**중국 등 해외진출도 활발**

과거 중동 해외건설공사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해수담수화설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 우리기업은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잠재능력은 배양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환경기술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은 떨어지고 있지만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전기집진기 제작기술등 일부 분야는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등에 진출하고 있다. 환경설비분야에 대한 해외수출을 '91년에는 7개업체 6700만불(약 500억원)을 준수한 바 있다.

(표 4).

**환경전담 부서 설치 『봄』**

30대 그룹중 20대 그룹이 그룹 기획조정실 또는 비서실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환경산업진출에 대한 그룹차원의 진두 지휘, 환경로그제작, 환경캠페인 전개(1사 1산운동 등), 환경광고 추진등을 총괄하고 있다. 상당수의 그룹에서는 『자체 환경보전강령』, 『환경상품개발』, 『환경위원회운영』, 『환경로그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특히, 금년 『리우회의』와 『기업인환경선언』 등이 자극제가 된 듯하다.

일부기업은 환경전담부서에 『자체암행환경 감시팀』을 설치·운영하기도 한다. 4~5명으로 구성된 암행감시팀은 수시로 전국의 계열회사공장등을 순회하며, 자체 감사를 추진한다. 공무원의 불시점검과 샘플링까지 하여 자체 연구소에 의뢰, 검사까지

〈표 4〉 '92년도 환경설비공사 수출실적

업 체 명	공 사 명	금액(천 \$)
계	8	67,470
삼성엔지니어링	태국폐수처리 및 순수 제조시설	20,000
럭 키 ENG	인도네시아 염색폐수 처리시설	933
코 오 룡 ENG	태국 폐수처리시설	4,700
한 국 코 트 렐	대만 발전소 집진설비	40,000
금 성 프 란 트	방글라데시 집진설비	586
새 룬 기 계	싱가폴 집진설비	441
	필리핀 집진설비	450
대 열 기 계	중국 도장부스	360

한·중 수교이후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도 전반

적으로 활발한 실정이며 생활양식, 문화적 배경 등이 유사하며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다고 판단된다.

### 창조적 대응으로의 전환 움직임

기업이 환경문제를 의식한 것은 그리 멀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정책의지와 강도에 따라 눈치껏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던게 사실이었다.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배출허용기준으로 표현된다)을 충족하기에 급급했고 그나마, 정부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여 설치한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며 운영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환경문제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기업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된 것은 어쩌면 '80년대 후반 일지도 모른다. 특히, 3년 연속 발생한 『물파동』과 '91년의 낙동강 폐놀사건의 교훈은 모든 기업인에게 일대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투자해야하나』에서 『투자하는 것이 득이다』로 바뀌었으며, 금년 『리우환경회의』와 『기업인 환경선언』으로 연결되면서 환경문제에 기업이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전환하였고 환경기준의 준수를 논하는 방어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능동적, 창조적 대응으로 바뀌었다. 제품의 제조, 유통, 폐기과정까지를 염두에 두는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철저한 환경의식이 경영자를 중심으로 일고 있으며 이는 각종 환경캠페인, 환경상품개발, 환경산업진출로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다. 환경 『봄』이 전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 일과성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같이 『리우환경회의』 이후 각종 정부대책의 추진과 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며 기업이 앞장설 때 우리들의 환경문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분

야의 대책이 그러했듯이 『리우회의』 이후의 『봄』을 타고 일어난 환경의식전환운동 등이 일과성이 아닌 범국가적 환경의식전환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60년대, '70년대 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새마을정신』을 정신적 주춧돌로하여 기업이 앞장선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문제와 국내환경문제는 『환경의식전환』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항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4~5년전 부터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전술한 기업의 창조적 대응 전략이 우리기업 전체에게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표 5).

〈표 5〉 21세기를 향한 기업인의 대응전략

